



보 도 자 료



- ▶ 직업능력정책과장 박성희
- ▶ 김우영 사무관
T E L : 2110-7261
E-MAIL : rossa17@molab.go.kr
F A X : 504-2039
- ▶ 노사발전재단 고용HRD팀
T E L : 6670-3922
E-MAIL : gun3102@hanmail.net
F A X : 6670-3932

- ▶ 2009. 1. 20 배포
- ▶ 총 6쪽 (사진없음)

“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교육·훈련사업 지원 대폭 확대”

- 노동부는 2006년부터 노사가 함께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하는 『노사공동훈련사업』을 추진하여 왔으며,
 - 2009년도에는 경기 불황 등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훈련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,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.
 - ※ '06 1,900백만원 → '07 1,875백만원 → '08 1,931백만원 → '09 3,995백만원
- 노사공동훈련사업은
 -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현 장성 높은 훈련을 제공하고
 - 노사의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생산적·협력적 노사 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,

- '08년 <전국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 - 포항철강단지 건설협의회> 등 노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 형태로 총 12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다.
 - 2008년도 노사공동훈련사업을 통해 건설·플랜트부문, 섬유 봉제부문, HRD 부문, 문화서비스 부문 등에서 총 2,500여 명(재직자 84%, 실업자 16%)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,
 - 그 결과 임금상승, 승진, 정규직화 등 고용지위가 상승 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
 - 특히, 건설·플랜트부문에서의 실업자 취업률은 약 95%로, 건설 경기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업자들을 취업으로 연계하였다.
 - <한국노총 대구경북 건설현장노조 - (주)진솔건설>은 특히 노사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.
 - '08년 원자재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훈련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으나 사측의 철근 지원으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,
 - 총 9회의 노사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가 협력 하여 활발히 사업을 진행한 결과, 총 120명의 수료인원 중 20명이 철근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, 30여명이 임금이 상승되는 등의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다.
- [붙임] <한국노총 대구경북 건설현장노조 - (주)진솔건설> 사례

노사공동훈련사업 모범 사례

◆ 한국노총 대구경북 건설현장노조, (주)진솔건설은 노사공동훈련 사업을 통해 노사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, 노사공동훈련의 효과성 입증,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타 사업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음

- ◇ 사업수행 및 협력단체명 : 한국노총 대구경북 건설현장노조, (주)진솔건설
- ◇ 사업명 : 건설 노동자 직무재교육
- ◇ 훈련내용 : 철근직무재교육 및 건축설계 CAD 교육
- ◇ 훈련인원 : 120명
- ◇ 예산 : 노동부 지원금 1억 7천만원, 자체 투자금 1천 4백만원

1. 노사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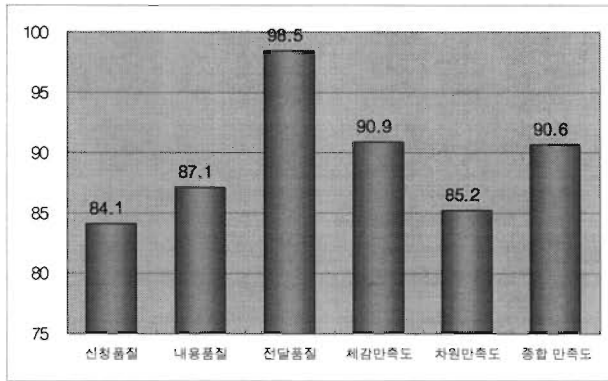
- 노사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훈련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노사정이 참여함으로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
 -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훈련을 노사가 협력하여 실시하여 노사파트너십을 제고
 - ※ 원자재값 상승으로 훈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측의 철근 지원으로 훈련을 원활히 진행, 이는 훈련을 통해 기술이 향상된 인력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노사의 공감대 형성에 기인
 - 노사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측대표, 감사는 북부지청 고용안정센터 팀장이 담당함으로써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도모

-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“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노사단체는 매우 효과적인 전달체계이며, 훈련의 수요자인 사측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훈련이 추진될 수 있다.”라고 말했다.
- 노동부는 2008년부터 노사발전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 2009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위탁계약(노동부-노사발전재단)을 체결하였다.
 -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06년 설립된 노사파트너십의 전략적 추진기구로서,
 - '08년 사업 위탁 이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, 지원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멘토링 등 사업 컨설팅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업을 더욱 체계화하여 추진해오고 있다.
- 노사발전재단은 2009년 노사공동훈련사업 신규 지원단체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1월 말까지 접수하며
 -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(www.nosa.or.kr)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.

- 경북지노위위원장, 폴리텍 대학 교수 등 정부측 관계자 및 훈련전문가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훈련사업의 신뢰성 도모

2. 훈련의 효과성 제고

- 한국노총 대구경북 건설현장노조의 노사공동훈련 참가 훈련생 만족도 조사 결과, 90.6점으로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('08.11.22. 기획재정부 실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)



<한국노총 대구경북건설현장노조 훈련생 만족도 조사결과>

- ※ 서비스 신청 품질 : 교육서비스 접근 경로
- ※ 서비스 내용 품질 : 교육내용, 교육기간, 교육장비, 훈련후 업무능력향상정도
- ※ 서비스 전달 품질 : 노사의 적극적 참여도, 교육 제공 직원 친절성
- ※ 체감만족도 : 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
- ※ 차원만족도 : 신청, 내용, 품질 항목별 만족도

-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철근기능사 시험에 훈련생 총 40명 중 32명이 등록하여 시험에 응시, 20명이 합격

-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 회복 및 기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취업에 용이하게 활용

- 사측에서 훈련전반에 참여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한바,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철근일용직 임금의 최고 단가를 지급토록 전문건설협회측이 합의

3.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

- 한국노총 대구경북 건설현장노조는 노사공동훈련을 통해 일용직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, 일자리 창출에 기여

- 대구지역 건설업계의 실업 한파에도 불구하고 노사공동훈련생들의 대부분이 월 20일 이상 작업 현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음

- 이는 훈련을 통한 훈련생들의 실력 향상 및 타 직업훈련과 비교하여 훈련의 질적 향상을 입증